

4개국 분야별 전문가 기후위기 대응 토론 남북시장에 '여행자거리' 조성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온라인 개최... 지역먹거리·기후금융·일자리 정책 발제·의견 제시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 동시에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건강 식단을 늘려 나가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먹거리 실천 방안이 전주시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제시됐다.

전주시와 로컬푸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21일 스웨덴, 호주, 영국, 한국 등 4개국 3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로컬푸드 대표와 알프 호르보리 스웨덴 Lund 대학 교수, 앙드레 레우 호주 리제너레이션 인터내셔널 국제 이사, 앤드류 심스 영국 서섹스 대학 연구원, 제이슨 힐켈 영국 런던경제대학 선임연구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국내 지역먹거리·기후금융·일자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회의는 알프 호르보리 교수와 김미옥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주시와 로컬푸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21일 스웨덴, 호주, 영국, 한국 등 4개국 3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역화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알프 호르보리 교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그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자원이 요구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온 한다"면서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재설계되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규칙부터 다시 디자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생산자, 소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탄소생태농 먹거리 선택하기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건강 식단 늘리기 △농업,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먹거리 체계 전환하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세션은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어졌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의 녹색금융 사례가 소개됐으며, 기후위기의 탄소 사

를 끊고 녹색금융, 기후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문화적, 규제적 변화의 중요성 등이 역설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이어진 3세션에서는 기후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고용위기 속에서 시민공동체 중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됐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로컬푸드 대표는 마지막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결합이 드러났지만, 보다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지역화로 전락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무관중으로 전 과정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녹화 영상은 추후 제공된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그간 전주에서 7번에 걸쳐 개최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통해 형성된 지역과 담론은 지역화폐 발행 등 지역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로 도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화 담론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시정에 적합한 정책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내년 3월까지 가설점포 철거된 120m 구간

가설점포들이 철거된 전주시남부시장 앞 공간이 여행자거리로 탈바꿈된다. 한옥마을 관광객의 외연을 남부시장과 서학동 예술마을, 완산철봉 꽃동산 등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내년 3월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싸전다리부터 매곡교까지 400m 구간 중 가설점포가 철거된 120m 구간을 여행자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가설점포 철거를 마친 시는 120m 구간을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 한전주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펼쳐 전주천과 초록바위 조망이 가능한 확 트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남아 있는 가설점포 280m 구간의 경우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남부시장 이용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여행자거리가 조성되면 한옥마을 관광객이 남부시장 청년몰 등을 이동하는 또 하나의 동선을 제공하는 등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옥마을 중심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1일 야호학교 2층 회의실에서 '2021 하반기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존 전주시청소년안정망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4개 청소년 관련 기관의 대표가 위원으로 속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 경과와 올해 전주시청소년안정망 중점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한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적합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전주시청소년안정망의 허브 역할과 특별지원 사업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된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건강·자립·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jsngdam.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옛 전통시장 사진 '최우수 기록물'

전주시, 공모전서 이종근 씨 기증한 111장 사진 선정

1990년대 전주 남부시장 사진부터 삼례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전통시장 사진들이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기록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주의 시장, 상업·유통' 관련 기록물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0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이종근 씨가 기증한 111장의 전통시장 사진을 최우수 기록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기획주제인 '시장(상업·유통)' 부문과 공통주제인 '전주' 부문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먼저 '시장(상업·유통)' 부문의 경우 1990년대 전후로 남부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전통시장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담은 사진 111장이 최우수 기록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시장을 관통하는 시내버스의 모습이 담긴 남부시장 사진부터 고산 우시장, 고창 수박 등 지역의 특산품들을 거래하는 사진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주 관련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전주' 부문에서는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사진 500여 점을 비롯해 홍보물, 행사 진행자료 등의 일괄 자료가 최우수 기록물로 인정받았다. 이외에 △소화17년(1942년) 호남양화점, 전주의원 영수증을 모아놓은 영수증철 △1970년대 전주 소재 사진관(영흥사, 문화시장, 영생사 등) 필름 보관집과 필



1990년대 전주남부시장 사진.

름 속 당시 전주 사진 △1980년 전주-서울간 신형 동차(기동차) 개통식 사진 △1970년대 상점에서 사용한 금고 △1971년 남부시장 그릇 가게 근무 당시 찍은 남부시장 배경 사진 등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록물, 사진, 문서 등도 수집됐다.

시는 소장자료 기증자 전원에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기증보상금(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15곳에 옐로카펫 설치한다

운전자 가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색 카펫이 깔린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15곳의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특히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카펫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

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총 76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된다.

옐로카펫이 설치되는 곳은 △기린초 △전주초 △양지초 △자곡초 △문정초 △용흥초 △서문초 △덕일초 △송천초 △조촌초 △민성초 △동신초 △평화초 △아중초 △만수초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가동해 언제나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